

'철근 누락' LH 계약 해지 잇따라... 20개 단지서 47건

모두 임대주택... '오산세교2 A6' 10건으로 최다 12건은 철근 누락 추가로 드러난 5곳에서 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 중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견된 단지 20곳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들의 계약 해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철저한 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수 조사 결과 발표에서 빠진 철근 누락 단지 5곳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47건으로 집계됐다. 계약 해지는 모두 임대주택에서 나왔다.

LH는 지난달 31일 1차로 철근 누락 15개 단지 목록을 발표했다. 이후 이달 11일 전수조사에서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은 5개 단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20개 단지의 총가구 수는 1만8150가구로 분양은 4336가구, 임대는 1만3814가구다. 20개 단지 중 가장 많은 계약 해지 신청이 들어온 곳은 올해 3월 준공돼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오산세교2 A6(10건)

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863가구로 이뤄진 이 단지는 지하주차장 무량판 부분 기둥 90곳 중 75곳에서 설계 오류로 철근이 누락됐다.

인천가정2 A1(공사 중-임대 510가구)과 평택소사별 A7(준공 후 입주 전-임대 350가구)에서도 각각 6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들어왔다.

입주가 완료된 공주월송 A4(임대 820가구)와 남양뉴타운 B10(임대 1778가구)에서는 각각 5가구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과주운정3 A34(입주 완료-임대 1448가구)와 양산사송 A8(공사 중-임대 808가구)은 각각 3건, 아산탕정2 A14(입주 완료-임대 1139가구)와 양주희천 A15(공사 중-임대 880가구)에서는 각각 2건의 해지 신청이 나왔다.

남양주별내 A25(입주 완료-분양 252가구-임대 128가구)-음성읍 A2(입주 완료-임대 500가구), 과주운정3 A37(입주 완료-임대 1810가구)-내포신도시 RH11(입주 중-임대 822가구)-광주선운2 A2(공사 중-임대 606가구) 등 5개 단지에서도 1건씩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 중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견된 20곳서 47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경기도 오산시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 모습. 박미나 선임기자

특히 전체 계약 해지 47건 중 12건은 지난 11일 추가로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된 5개 단지에서 나왔다.

2차로 공개된 단지는 남양뉴타운 B10-평택소사별 A7과주운정3 A37고양장항 A4-익산평화 등이다.

LH는 당시 이들 단지에서 누락된 철근은 5개 미만으로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1차 발표에서 제외했으나, 오히려 전체 계약 해지 건수의 4분의 1가량이 추가 공개된 단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통상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의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 해지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단지 계약 해지가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부분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LH는 철근 누락 문제가 제기된 LH 발주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약 해지된 부여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다른 임대주택 입주 시 감점 면제-인근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이 거론된다.

박상훈 기자 psh@skyedaily.com

DL건설, 현장 근로자·관리자 안전보건 캠페인

6대 안전점검 수칙 강조 우수 현장·직원에 포상

DL건설이 현장 안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DL건설은 올해 2분기 현장 안전보건 캠페인인 'TBM(Tool Box Meeting) &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의 실효성 및 당사 일일 안전 활동(D-SWPM Cycle)의 작동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현장 근로자(TBM)와 현장 관리자(작업시작 전 안전점검)로 나눠 진행됐다.

DL건설은 캠페인 기간 중 안전보건 인식 향상을 위해 각 항목별로 주요 6대 수칙을 제정해 임직원들에게 지속

홍보했다. TBM 분야의 경우 △10인 이내 그룹 활동 △명확한 위험요인 전달 △전달 사항 사전 메모 △질문하는 습관 △건강상태 확인 △개인 보호구 최종 확인 등의 현장 근로자 수칙을 수립했다.

또한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누락 없는 취약점(Weak Point) 도출 △취약 분야 담당자 인지 △이행 여부 피드백 관리 △점검 결과 신속 공유 △위험요인 발견자의 즉시 시정 조치 유도 △능동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의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수칙을 강조했다.

이후 지난달 말 평가를 통해 DL건설은 우수 현장(Safety Zone)을 선정해 근로자와 함께할 수 있는 커피트럭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수 직원(Safety Man)도 함께 선정해 상품권을 전달했다.

박상훈 기자 psh@skyedaily.com



DL건설은 2분기 현장 안전보건 캠페인인 'TBM(Tool Box Meeting) &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된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현장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DL건설

이번주 '청계SK뷰' 등 3683가구 공급

서울·전남·광주 등 4개 단지 일반분양이 1834가구 달해

8월 넷째 주 SK에코플랜트 '청계SK뷰' 등 전국에서 총 368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성동구 '청계 SK뷰' △전남 장성군 '힐스테이트 첨산센터' △광주 북구 '힐스테이트 신동더리' 4개 단지에서 총 3683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834가구다.

SK에코플랜트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원에 '청계SK뷰'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3개동·총 396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10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옆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서울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1km 내에 답십리초, 신답초, 마장초·중, 송인중, 동대문중 등의 학교가 밀집해 있고 성동구립용답도서관·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등도 가깝다. 단지 앞으로는 공원과 청계천이 있다.

경분주택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호반써밋 개봉'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공원 우미리 리버포레' △전남 강진군 군동면 '강진 승원팔리체 리버시티(민간임대)' 등 3곳에서 개관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일원에 개봉5구역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호반써밋개봉'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4층·3개동·총 317가구 중 전용면적 49~114㎡ 19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와 인접한 남부순환로와 오류IC를 통해 여의도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를 30분대로 도달 가능하며 서울 중심지를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당첨자 발표는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라네' 등 7곳, 정당 계약은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이스트폴' 경기 광명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등 8곳에서 이뤄진다.

박상훈 기자 psh@skyedaily.com

8월 넷째주 분양일지

구분	단지명	자료: 부동산R114	
21일(월)			
접수	광주 북구 신원동 힐스테이트신동더리버 1순위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신원2(국민임대) (~8/25)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신원2(영구임대) (~8/25)		
	제주 제주시연동 더샵연동메비뉴 2순위		
계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 (~8/25)		
	경기이천시 중리동 이천중리우미리리버시티 (~8/24)		
	경기 광명시 고덕동 호반써밋고덕신도시3차 (~8/23)		
	강원 속초시 속초동 힐스테이트속초 (~8/24)		
22일(화)			
접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계SK뷰 1순위		
	광주 북구 신원동 힐스테이트신동더리버 2순위		
	전남 장성군 진원면 힐스테이트첨산센터 1순위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은평푸르지오밸리드(민간임대)		
발표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센트럴아이파크 (~8/25)		
	부산 금정구 남산동 아센시아더블러스 (~8/24)		
	23일(수)		
	접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계SK뷰 2순위	
전남 장성군 진원면 힐스테이트첨산센터 2순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라네			
경기 광명시 진위면 진위역서힐스테이트파크뷰			
발표	대전 서구 둔산동 이랜드퍼미트(민간임대)		
	광주 서구 용암동 위파크더센터 빌		
	경남 창원시 용원동 신항미리에서양		
	24일(목)		
오픈	전남 강진군 군동면 강진승원팔리체리버시티(민간임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은평푸르지오밸리드(민간임대) (~8/26)		
계약			
	25일(금)		
오픈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호반써밋개봉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공원우미리리버포레		
발표	제주 제주시연동 더샵연동메비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시그니티 (~8/27)		
계약			

대우건설·원자력, 선진기술 공동개발 나서

대우건설은 18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구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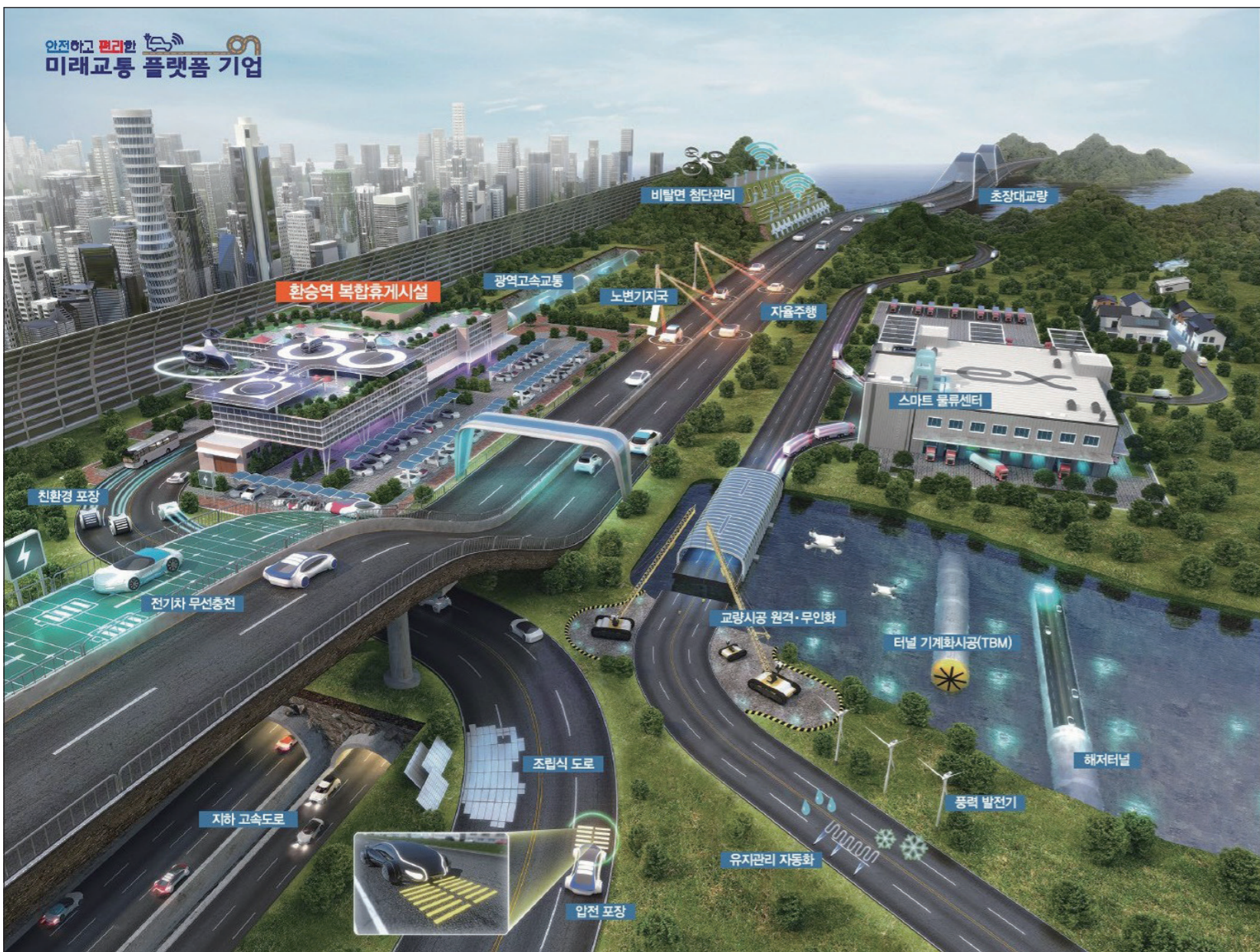
양사의 주요 협력분야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과 해외 연구용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기술 등이며 이를 위해 양사는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 연구 시설 및 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협력 분야에서도 선진기술 국책과제를 공동수행하며 대우건설 자사의 설계·연구 인력 등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MOU로 국내 유일의

원자력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원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최근 원전산업 여러 분야의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이어 가며 원전시장 공략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6월 한전KPS와 원자력분야 해외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지난달에는 SK에코플랜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내외 원전 및 플랜트 사업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정도현 기자 djung@skyedaily.com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의 스마트한 진화! 한국도로공사가 만들어갑니다

고속도로 디지털화, 복합환승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 물류 구축, 고속도로 입체 개발